#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FAX: (02)737-0697/8
● PC통신: 인터넷부디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 우리는 본래 무한한 힘·생명 갖춘 부처

☞ 15면에서 계속

이 공부하여 자유인이 되고자 원을 세웠건만 찰나찰나 변하는 이 마음을 어찌하오리까. 스님! 몇 달 전부터 놓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주위만 맴돌고 있는 것같아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스님! 이 공부를 꼭 해야 되겠습니다. 바로바로 되돌려 놓는 작업을 하고 싶습니다. 제 힘으로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큰스님의 대원력이 있으리라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합장합니다.

**답** 한 생각 어떻게 돌리느냐에 따라서 즐거울 수도 있고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각자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어쩌한 고난이 닥쳐오더라도 간절하게 맡기고 놓고 지켜보며 기다릴 수 있어야지. 지켜보지도 않고 안절부절하고 불안해한다면 더 어지러운 일이 벌어집니다. 믿고 맡겨놓고 기다리면 그냥 굴려져서 해결 될텐데도 말입니다.

가만히 보면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하는 분들이 어떨 땐 터무니없이 야단일 때가 있어요.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속지 말고 대처해 나가야 하는데, 자기에게 자기가 속아서 본인은 물론 주위 사람들에게도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묶였으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풀어야 할 텐데 더 묶이고 마는 형상이 되는 겁니다.

거듭 얘기하지만 주인공에 놓는 작업, 지금까지 있게 한 자기 주처를 믿으며, 어떠한 병고 액난이 닥쳐오더라도 거기에서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맡겨놓고 물러서지 않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조급한 마음으로는 도의 길에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묵연한 마음으로 자기의 주인을 믿고 들어가야만이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항상 초조하고 답답한 그 마음을 먼저 놓고 지켜보십시오.

### '내가 공했다'는 뜻

**문** 스님, 저는 개인적으로 관계사고라는 정신병을 앓고 있습니다. 관계사고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서로 말하거나 웃으면 내 욕을 하거나 비웃는 게 아닌가 하고 의심을 가져서 괴로움을 느끼는 병입니다. 신경정신과에도 다니지만 그들 이론에 대한 어설픈 알음알이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여전히 괴롭습니다. 저는 '그래, 신경정신과에 다니는 것도 네가 하는 것 아니냐? 그 의사의 마음을 빌어서 낫게 하는 것도 너잖아!' 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주인공 너만이 괜찮게 할 수 있잖아' 하고 관하고 있습니다.

며칠전 법회에서 듣게 된 "고는 마음을 승화시키기 위해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내가 마음공부 잘하는 편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아상과 아만과 아집이 가득찬 초심자일 뿐이었다는 것을 차츰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마음으로 진정 죽는다면 저의 병도 상관없어지겠지요. 계속 맡기면 내가 죽는 동시에 병도 흔적이 없어지겠지요? 내가 공했다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 누구나 불가사의한 다섯 가지 신통력의 작용을 갖추어 가지고 있는데, 그 중 숙명통은 컴퓨터로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과거로부터 지은 대로 컴퓨터에 입력되어 있는 모든 인과, 유전, 영계, 세균 등 업보가 하나하나 현실로 나오는 것이니, 팔자 운명 타령하지 말고 다가오는 대로 다시 되 입력시키면 과거의 것은 모두 무너져 버립니다.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모두 내 탓으로 돌리고, 근본을 믿는 마음으로 나온 곳에 되놓아야만이 고난을 극복하고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꾸준히 그와 같이 믿고 맡기면 고가 무너지고, 착 또한 없어집니다. 어떠한 것에도 착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유인이 된다는 말이지요. 그러니 이론으로만 알려고 하지 말고 자기 근본을 믿으십시오. 백 번 외우는 것보다도 백 가지를 알고 있는 것보다도 한 번 실천하는 정신으로 공부해야 합니다.

### 결혼에 궁합도 중요한지요

**문** 기복 불교에 조금은 물들어 있던 저에게 대행스님의 법문과 책은 신선한 충격이었으며 새로운 용기도 생겼답니다. 감사드립니다. 스님, 저는 32살된 미혼여성이며 그 동안 맞선도 많이 봤답니다. 그 동안 제가 제일 먼저 기본으로 꼽는 결혼상대자 조건은 저와 궁합이 좋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스님의 법문을 들으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지만, 오랫동안 간직한 생각이라 쉽게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주위의 친구를 볼라치면 철학관을 통해서 "궁합이 좋다" 는 소리를 들은 부부들은 순탄히 잘 사는 것 같고 "궁합이 나쁘니 결혼하지 말라" 는 소리를 들은 친구 부부들은 매사 어려운 일도 많이 생기고 심하면 이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스님, 결혼에 있어 궁합도 중요한지요. 아니면 궁합에 상관없이 결혼해도 되는지요. 이 글을 쓰는 제 자신 한심하단 생각은 들지만 답답하고 혼란스러워 이렇게 여쭙니다. 꾸지람 내려 주십시오.

**답**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아닌 딴 곳에서 해답을 찾습니다. 육신은 의사와 병원에 의지하고, 가난은 남에게 기대어 해결하려 하고, 운명은 사주 관상쟁이에게 묻고, 자녀 교육은 학교에 맡기고… 하는 식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해결책은 될 지 몰라도 궁극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합니다. 옷이 날개라는 말이 있지만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그 옷 자체가 내 몸이 될 수는 없듯이, 아무리 그럴듯한 것이라도 나 자신 아닌 것에서 찾은 것은 나 자신이 될 수가 없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찾으라고 나는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 속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 속에서 의사를, 병원을, 그리고 해결책과 치유책을 찾아야만 합니다. 사람들은 밖으로 도느라고 그 무한한 내면의 해답을 끌어낼 줄 모르고 언제까지나 바깥의 상황에 얽매여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니 그러다보면 언제까지나 노예로서 사는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내 안의 주인이 잘 압니다. 내가 결혼을 해서 좋을 지 나쁠지를 내 안에다 한번 지극하게 관해 보세요. 내 안에 해결사가 있고 내 안에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주인이 있음을 100%로 믿고 진실한 마음으로, 좋고 나쁘다는 마음을 버리고 주인공에 일임해서 믿고 맡긴다면 분명히 답이 나올 겁니다. 꼭 그렇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어떻게 해야 업이 녹을는지…

**문**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불자로서 살아가다 보면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면서도 계를 어기고 후회하고 난 뒤 마음을 잡고 다시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면서도 잘못을 저질렀던 것에 대하여 후회하는 반복인 것 같습니다. 업이란 의지를 갖고 행한 결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업을 녹여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 항상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미 이 세상에 배낭을 짊어지고 나왔기 때문에 과거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몸속에 이미 수억 개의 악업 선업을 짊어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과거가 어디 있습니까?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없구요. 그럼 그 배낭 속에, 몸이 배낭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렇게 수억 겁을 거치고 진화되면서 쫓고 쫓기면서 인과를 짓고 업을 지은 그 악업 선업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느냐? 그것은 오직 한 가지, 모두 나오는 대로 용도에 따라서 나온 자리에 다시 다 맡겨 놓으신다면 바로 과거의 것은 무너지고 없어진다 이 소립니다.

> 알려고 하는 마음을 쉬고
> 그 알려고 하는 놈이
> 누구인지 지켜 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좋게 생각하고 맡기는 것만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숙명통이라고 하죠. 숙명통을 비유한다면 지금 컴퓨터와 같은 겁니다. 과거에 짊어진 입력이 나오는 것이 마치 컴퓨터에 입력하면 그대로 나오는 것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나는 그렇게 해도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 안 되긴 뭐가 안 됩니까? 생활이 그대로 부처님 법이자 우리들의 법인데, 여러분이 있으니까 상대가 있는 거지, 여러분이 없으면 상대가 있을 리가 있나요, 무효지.

그러니 바로 여러분 배낭 속에서 나오는 것이지 딴 데서 나오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배낭 속에서 나오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구요. 그러니 배낭 속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다 맡겨놔야만이 앞서 입력되었던 것이 없어진다는 소리입니다. 천차만별로 나오는 그 액난을 어떻게 대처하고 나갈 겁니까? 거기서 나오는 줄 모르고, 남을 통해서 나를 지겹게 만들고, 남을 통해서 망하게 만들고, 남을 통해서 사기를 당하게 하는 등 별의별 우환이 바로 다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억지로 못합니다. 그러니 거기에다 모든 것을 맡겨놓고 곧바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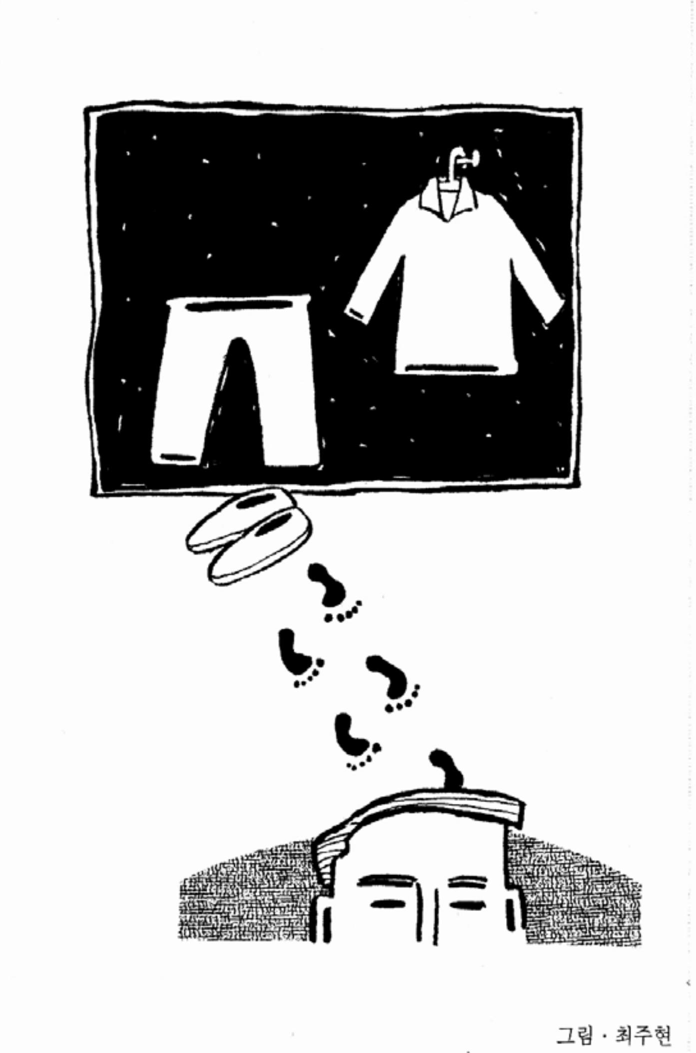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 시간·공간이 정말 없습니까

**문** 큰스님 안녕하십니까. 지면으로나마 스님과 이렇게 한자리 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큰스님 법문중에 공기 주머니를 벗어나라는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즉 지구를 벗어나 보라는 말씀으로 생각되어집니다. 한편 마음을 넓히라는 말씀과도 일맥상통 하겠죠. 1세기 전만 해도 감히 생각지도 못한 것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지구를 볼 수 있고, 달과 화성의 표면도 볼 수 있습니다. 지구 생성을 46억년으로 추정하여 그것을 한시간으로 볼 때 인류가 존재한 시간은 단 몇 초에 불과한 시간이라 하니 5천년 역사니 불기 2543년이라는 시간적인 개념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주에서 볼 때 지구가 포함돼 있는 태양계는 한쪽 구석진 곳에 위치해 있답니다. 우리는 은하계의 중심으로부터 3만 광년이나 떨어진 곳에 있다 하니 그곳에 공간의 의미 역시 있을까요. 바로 4차원의 세계가 우주가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큰스님께서 말씀하시는 시간과 공간이 없다는 말씀은 깨우침의 세계에서만 알 수 있는 것일까요.

**답** 우리가 지금 마음공부를 한다는 것은, 마치 폭포수가 쏟아지는 것과 같이 틈을 주지 않는 마음 법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비행기의 프로펠러가 돌아가는데 거기에 한 치의 틈도 없이 돌고 있는 도리를, 본래 시간과 공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한 치의 틈도 없이 돌고 있는 이 세상을 바로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본래부터 자기의 근본은 시공을 초월하고 모든 상대적 세계를 초월하여 고정된 바 없이 쉴 사이 없이 나투어 돌아가고 있으므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현상계의 모습입니다- 본래 그 어떠한 악업 선업마저도 붙을 자리가 없다는 말입니다.

# 모두 내안에서 일어난 것인줄 알면 방황안돼

# 물러서지 않는 믿음이어야 둘아닌 도리 알아

그래서 항상 얘기하듯이 부처님께서는 생활에 어떠한 악업 선업이 있다 해도 결코 거기에 속지 말라, 걸리지 말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근본 자리는 어디에도 고정되게 머무는 바 없지만 그 어디에도 쉴새없이 나투어 돌아가고 있으므로, 그것을 공했다, 주인공이다, 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오로지 자기 주인공만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진실하여 결코 물러섬이 없다면, 마치 타는 불에 떨어지는 눈처럼 어떠한 악업이라도 스스로 녹아버려 해결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이 진실하여 결코 물러섬이 없다면 새삼스럽게 348계다, 250계다 하는 것들이 다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주인공에 대한 믿음에 물러섬이 없다면 자연히 일체가 둘이 아님을 알게 되고, 일체를 둘 아니게 보게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내 모습으로 볼 수 있는 자비가 우러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백지 위에 그려진 글씨를 알려고 10년, 20년을 애쓰지 말고, 글씨 쓴 백지, 곧 '너 자신부터 알아라!' '너 자신부터 믿어라!'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알고, 자기 자신을 참으로 믿는다면 우리 마음이 탁 터지게 되고 또 모두가 둘이 아님을 알게 되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일체 모든 것을 자유자재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왜 그 '苦'를 당하고만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알려고만 하지 하나라도 실행해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그러니 알려고 하는 그 마음을 쉬고, 그 알려고 하는 그 놈이 누구인가를 지켜보십시오. 그래야 진정으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 아버지 영혼 구제해 드리고 싶어요

**문** 얼마 전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평소에 효도 한 번 못하고 못되게 굴었던 모든 것들이 죄책감이라는 이름으로 저를 괴롭힙니다. 모든 것을 주인공에게 맡기고 '주인공 당신이 다 잘 이끌어 줘' 하고 생각해보지만 너무 이기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죄책감에서 벗어나 내 마음의 안정을 찾자고 주인공에 맡기는 것 같습니다. 스님, 아직 49재를 지내지 않은 아버지의 영혼을 위해 제가 도움이 될 만한 일은 없을까요?

**답** 그건 여러분이 어떻게 마음을 가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부모님의 죽음에 대해 얼마만큼이나 의연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평소에 못 해드렸다는 생각때문에 그러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후회만 하거나, 괴로워하거나, 슬퍼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더이상 육신으로는 아무것도 해드릴 수가 없는 걸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효도의 한 방법으로 사십구재 및 천도재를 지냅니다. 다행히도 아버님 사십구재가 아직 지나지 않았으니깐 그 동안 못해드린 몫까지 최선을 다해 아버님을 위해서 관해드리세요. 정말 간절하게 관해드린다면 그거야말로 효도하는 길인 것이죠.

또 부모가 연로하셔서 건강하게 사실 수가 없다면 이 생에서의 모든 괴로움을 벗어버리고 부모님이 편안하게 다음 생에서 보다 더 나은 몸으로 바꾸실 수 있도록 자손들이 지극하게 정성을 들여야 합니다. 이제라도 부모님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 아프지 않고 편안하게 가시게 돼 있죠.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효도임을 알아야 합니다.

콩이 깍지를 벗을 때, 다 익었다면 쉽게 벗어지듯이 부모님이 고통을 느끼지 않고 자유스럽게 가실 수 있도록 그 마음 변치않고 간절한 마음으로 관(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아버님은 딸이 슬퍼하는 걸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니까요. 그래서 부모의 마음은 부처님의 마음과 같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마음을 가다듬고 아버님께 못해드린 효도를 아쉬워하는 마음을 접어두고 아버님이 이 생에서의 모든 습을 벗어버리고 한 차원 높은 의식의 차원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지극하게 마음을 내세요.

### 마음의 평온도 공부 체험인지요

**문** 스님! 법체 항상 건강하시길 마음내며 글을 올립니다. 주위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을 보면 보통, "내가 주인공한테 관을 해서 뭐가 이루어졌다" 이런 것을 체험이라고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도 물론 체험이긴 하지만, 무슨 일이 닥치든 맡겨놓고 지켜보면서 자기의 마음이 평온할 수 있도록, 자기 마음을 해결하는 것이 진짜 체험이 아닐까 싶습니다. 스님, 저는 평소에 지원의 스님으로부터 "생각이 많다", "공부를 너무 복잡하게 한다" 며 꾸중을 듣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를 내세우는 상이 강해서, 겸손한 마음도 부족합니다. 하지만, 그런 저의 부족한 점을 알고 있기에, "알고 있는 당신이 해결해야지!" 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스님, 스님께 드리는 저의 질문 또한 그저 공부를 복잡하게 하는 저의 생각일 뿐일까요?

**답** 우리는 모두가 무한하고 영원한 힘과 생명을 지닌 부처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살아왔던 의식에 눌려서, 이런 이야기가 당장에 전폭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쉽지 않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런 분들에게는 우선 작은 일에서부터 참나(眞我)의 힘을 체험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 만나는 어려움들을 나의 사량심에만 의존하거나, 다른 권위와 방편에만 의지하지 말고 내 안에 깃들어 있는 무한한 동력을 가진 발전소를 활용해 보라는 말입니다. 그러다보면 조금씩 내면의 힘을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다가오는 모든 것을 근본 자리에 믿고 맡기는 작업을 계속하시라고 항상 말씀 드리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공부를 해나가는 도반들을 상대로 보고 공부를 해 나간다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데는 내 근본 자리밖에 없다 하고 몰락 의지해야 할텐데도 불구하고, 믿고 맡기는 마음보다는 상대로 보고 나와 남을 사사건건 간섭하려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똥 굴러가는 것을 봐도 저 똥이 어디로 굴러가느냐고 야단들인데 그것이 어디로 굴러가든지 상관할 사이가 없어요. 오직 죽든지 살든지, 나의 근본으로 향하는 그 마음만이 나를 살리고 나를 이끌 수 있음을 믿고 뛰어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협찬 한마음선원 신도회